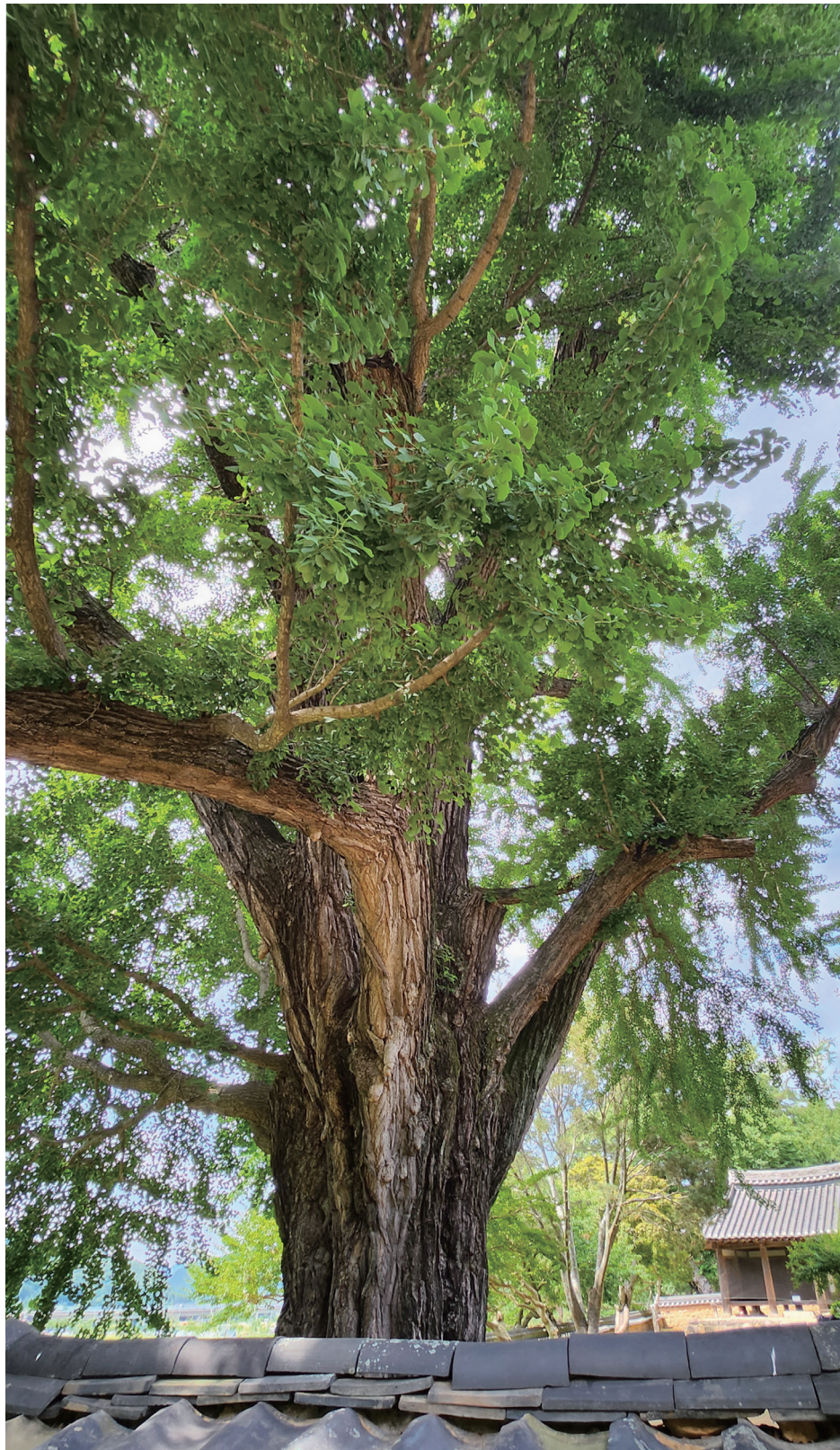




경주시
은행나무

별서(별장)를 지은 기념으로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김해-12-07-10 경남 밀양시 황성동 582-1
지정년도	1982 35° 29' 14.02" N
관리기관	밀양 128° 47' 01.58" E
수령	460년
수고	22m
흉고둘레	5.1m

밀양강이 굽이치는 얇은 언덕 위에 심어진 보호수 (밀양-12-13-2) 은행나무는 금시당 안쪽의 담벼락 옆에서 웅장하게 자라고 있다. 금시당은 조선 전기에 좌부승지를 지낸 이광진이 지은 별장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2m, 가슴높이둘레는 5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사방으로 너비가 16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6~7갈래로 갈라졌으며, 위쪽으로 향한 것과 옆으로 비스듬히 펼쳐진 것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유주가 군데군데에 달려 있으며, 줄기 중간 위쪽에서 작은 가지들이 많이 갈라져 퍼진 모양이다. 높이 7m 정도까지 고사한 여러 개의 가지 줄기가 잘려 나간 곳이 있기도 하지만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담벼락과 함께 울타리가 경계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고택의 건립 및 수목 식재와 관련이 있다. 은행나무는 금시당의 집을 지은 이광진이 손수 심은 나무로 의미가 크다. 심은 시기는 언제인지 불분명하지만, 금시당을 창건하여 준공기념으로 심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다. 당시에 어느 정도 자란 은행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 밀양의 명소인 ‘금시당 백곡재’는 밀양강이 돌아나는 경치가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명칭은 원래는 금시당과 백곡재를 따로 일컫는 것이다. 금시당은 조선 명종 때의 문신 이광진이 1566년에 지은 별서(농장이 나들이 있는 부근에 따로 지은 집)이며, 관직에서 은퇴 후 귀향하여 이곳에서 노년을 보냈다. 휴양하며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금시당은 이광진의 호이기도 하며, 금시^수로는 ‘지금이 옳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지만, 5대손인 이지운이 1744년 복원을 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1866년 크게 고쳐지었다. 백곡재는 금시당을 복원한 백곡 이지운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이 1860년 새롭게 지은 건물이며, 금시당 동쪽 축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고목의 은행나무가 있는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봄철에는 단아한 매실나무에서 피어나는 매화꽃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금시당은 후손인 여주 이씨 종중에서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